

대학 부설연구소 불교연구 '활발'



◇김은곤 교수



◇윤이홍 교수



◇이종열 교수



◇최성열 교수

전국 일반 대학 부설연구소 중 불교관련 연구가 중·장기적 계획하에 진행되고 있어 그 성과물에 대한 학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영남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소장 김은곤)의 '강화경관(江華京板) 고려대장경 소재 한국불교관련자료의 검토 연구'와 서울대학교 종교문제연구소(소장 윤이홍)의 '한국의 종교관' 연구, 한국정신문화연구소의 '형이상학에의 동서양의 접근', 조선대 박물관의 '회선·장성지역

과 <보유관목록>의 2중 구조로 짜여져 있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라며 '보유관목록, 즉 <대장목록> 외장에 불교의 새 문화와 교계의 변화를 함식 수용하여 입장(入藏)할 수 있도록 구조가 이뤄져 있기 때문에 <보유관목록> 장경연구는 우리 불교문화의 변화와 발전역량을 한눈에 엿볼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연구'라고 설명했다.

<보유관목록>은 조선 고종 2년(1865)에 완성했다는 점이 그 경관의 깊이를 평가절하하는 요인이 되어

(副藏)으로 분류되어 경시되어온 자료는 <고려국신조대장교정별록(高麗國新造大藏校正別錄)> 등 10개다. 영남대 민족문화연구소는 그 가운데 '강화경관 고려대장경 내·외장에 나타난 고려대장경의 특성'(김은곤) '선문업승집(禪門拈頌集)'과 진각사학 해심(慧心)(김홍동) '강화경관 고려대장경 소재 균여의 저술과 그의 사상'(한기문) '고려국신조대장교정별록'과 수기(守其)(배성현)를 주제로 1차 연구를 진행했다. 이 보고서는 이달

대장경보유관 역사의 조명 한국종교의 공통적 특색 찾기 '불교와 포스트모더니즘' 등 고찰

- 영남대 민족문화원
- 서울대 종교문제원
- 정신문화연구원

지표조사'가 그 대표적 연구 프로젝트.

영남대 민족문화연구소의 고려대장경 연구는 그동안 사간(私刊) 또는 사간(寺刊)이라고 하여 고려대장경의 반열에 포함시키려는 것이 부당한 것으로 취급돼 온 고려대장경보유관(補遺板)의 역사적 의의를 연구한다는 점에서 눈길을 끈다. 고려대장경 총 1514종 가운데 보유관은 109종.

소장 김은곤교수는 '강화경관 고려대장경의 편제(編制)'는 <대장목

록>과 <보유관목록>이 고종 2년에 작성된 것은 사실이지만 강화경관에 입장된 것은 경관은 강화경시대(江華京時代)에 이미 편찬된 것이 거의 대부분이라는 것.

영남대 민족문화연구소의 1차 연구결과에 따르면 고려대장경 소재 한국불교관련자료는 <대장서역구법고승전(大唐西域求法高僧傳)>을 비롯 총 14개로, 그 중 <대장경목록(大藏經目錄)>에 수록되어 있지 않아 '보유관(補遺板)' 혹은 '부장

말 간행예정인 <민족문화사> 제 18집에 게재된다. <대장서역구법고승전>과 신라승려들의 구법활동(배성현) '고승전' 및 '속고승전'에 입정된 한국고승의 행적(김홍동) 등 2차연구도 오는 6월까지 진행할 계획이다.

서울대 종교문제연구소는 94년부터 '한국의 종교관'을 주제로 불교 유교 도교 천주교 기독교 민족종교(무속)에 관한 연구를 매해 진행, 올해로 4차 연구를 맞는다. '한국종교의 연구사'(1차) '한국의

"한국불교 나아갈 방향 여래선"

원영스님 박사논문 '금강삼매경연구'

참선(參禪) 수행을 통한 성불(成佛)을 강조하는 오늘날의 한국불교는 보살행(菩薩行)의 실천을 통한 깨달음의 길로 나아가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원영스님(성철선사상연구원 부원장)은 '97 동국대 박사학위 논문 '원효의 <금강삼매경(金剛三昧經)> 연구 - 관행(觀行)을 중심으로'에서 '원효는 <금강삼매경론>에서 본각(本覺)과 시각(始覺)에 근거한 보살행을 밝히고 있다'며 '이제 한국불교는 여래선(如來禪)에 바탕한 깨달음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본각'은 본래 미혹(迷惑)하지 않음을 깨우치는 것인 반면 '시각(始覺)'은 처음에는 미혹하다가 나중에 미혹함을 떨치고 깨달음을 얻는 것. 원영스님은 "원효는 본각과 시각의 오묘한 차이에 대해 본래 본각과 시각은 다르지 않다고 밝히며 육도행(六度行)의 실천을 통한 보살행이 궁극의 깨달음에 이르는 길임을 설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원영스님에 따르면 원효는 <금강삼매경>을 처음 해석함에 있어 불교의 궁극적

목적인 깨달음에 초점을 두었다. 그리고 깨달음을 위한 관행으로는 법의 실상(實相)을 관하기도 하고 인연의 생멸(生滅)을 관하기도 한다. 그리하여 진여(眞如)를 발견하게 되는 보살 초지(初地) 단계에서는 정관(正觀)이 된다. 이때부터 무분별지(無分別地)인 시각이 생겨나서 본각과 함께 신수(新修)와 진수(眞修)를 거듭하며 점점 원만해져서 궁극의 깨달음으로 가는 것이다.

원영스님은 "고려 일연(一然)스님이 <삼국유사>에서 <금강삼매경론>에 대해 '본각과 시각인 이각의 오묘한 뜻을 드러냈다'고 했듯이 <금강삼매경론>은 깨달음을 핵심적 주제로 그 해답을 제시하고 있다"며 "이것은 곧 한국불교의 나아갈 방향을 제시한 것과 다를바 없다"고 강조했다. <정>



원영스님

"本覺과 始覺은 하나"

원효스님 육도행 강조

학술단신

원효학당 신입생 모집

한국불교연구원(원장 정병조) 원효학당이 △선의 이론과 실제(인한스님) △아함경 연구(최봉수) 등의 강의를 개설하고 98년 1학기 신입생을 모집한다. 개강은 3월31일이며 각 과장별 박사학위 수여 등의 특권이 주어진다. 등록금은 30만원 (02)445-8959

'불교학보' 2월말 발간

동국대 불교문화연구원(원장 권기중)은 <불교학보> 34집을 2월말 발간한다. 이번 호에는 '선종전통설의 성립과 발전'(성본스님) '대승사상에 대한 부파의 배전(排遣)과 그 비판'(권기중) '초기불교교단과 국가간의 관계'(신성진) '인사상과 그 사회적 의미에 대한 연구'(박경준) 등 논문 18편이 수록된다. 또 영화와 작업을 진행해 온 <한국선사상연구>의 영문판도 함께 발간될 예정이다.

"日 정토사상은 타력신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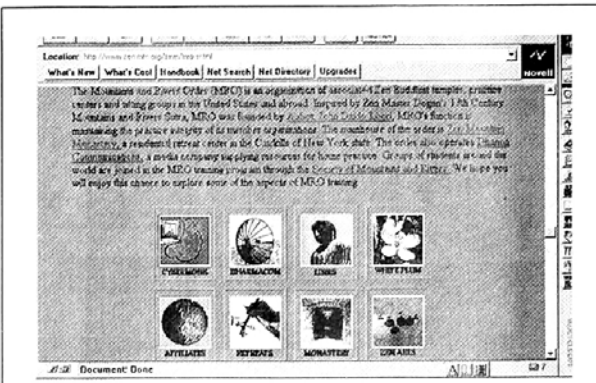
길희성교수, 기독교 구원론과 유사성 밝혀

일본 정토불교는 '자력적인 요소가 배제된 순수 타력신앙'으로 이것은 기독교의 구원론과 유사하기에 순수 정토신앙과는 다르다는 연구가 나왔다.

서경대 종교학과 길희성 교수는 최근 출간된 <지성의 현장>(도서출판 소화) 제 18권 1호에서 '일본 정토사상의 이해'란 글을 통해 "가미쿠리(鎌倉)시대에 출현한 신불교운동은 일본불교가 전통적인 정토신앙을 과감하게 탈신화(脫神化: demythologize)하게 만들었다"며 "그것은 헤이안(平安)시대 말의 사회적 혼란과 종교적 타락에서 기인하는 일종의 개혁불교운동으로 볼 수 있다"고 고찰하고 있다.

길교수는 기독교와의 유사성을 보이는 가미쿠리 신불교운동의 특징으로 삼강(三強) 말법(末法) 의식 스매타적 전수(傳授)의 이념 △신앙과 이행(易行)의 강조 등을 들고 있다.

길교수는 "인간의 이성과 지혜로써 깨달음 보편적 사고가 아닌, 다른 매개체(법장보살과 예수)에 의지함으로써 구원을 바란다는 점에서 일본 정토신앙은 기독교의 구원론과 유사할 뿐만 아니라 정통 정토신앙에서 벗어나 있다고 분석했다.



부다피아 사이버 기행 선산사원

선산(禪山)사원은 미국에서 일본불교의 현주소를 가늠할 수 있는 사이트. 미국에서 대표적인 선사(禪師)로 꼽히는 다이도 로리스님이 주축하고 있는 선산사원은 출가승의 수행도량으로, 재가불자들에게는 실천적 수행과 생활선(禪)을 배울 수 있는 사찰로 각광받고 있다.

이 사이트에서는 사원에서 가르치는 수행법인 ▲팔문법(Eight Gates) ▲정행(Right Action) 등을 비롯해 다양한 정보를 열람할 수 있다.

침묵과 깊은 성찰로 요약되는 '팔문법'은 매일 7~10시간의 좌선, 염불, 공양, 행선, 율儀 등 직관적 수행과 육체·감성적 실천이 병행된 선산사원 특유의 수행법. '정행'이란 죄수교과·환경보호·에이치티비 운동 등의 실천적 보시행. 뉴욕주립교도소의 요청을 받아 1984년부터 시작한 '죄수교과운동'은 교도소에서 죄수들의 선수행을 지도하고 일반 죄수들의 귀도 돕고 있다. 또 1992년부터는 환경교육·보호, 자원재활용 등도 전개하고 있다. 이 사이트의 전자앨범에서 제공하는 40여장의 사진은 이같은 활동들을 가능하게 한다.

이외에도 '선산사원' 사이트에서는 <생활의 도(道)>(1979) <선의 팔문(八門)>(1988) <살아있는 것의 불성(1996) 등 로리스님의 선사(禪書)와 불서 20여권의 서경과 '원과 바위' '무명석(無明石)' '바위와 물' 등 선화(禪畫) 8점도 열람할 수 있다. 또 ▲전자잡지(Mountain Record) ▲불교음악 '연도 승차권(One Way Ticket)' 등도 열람할 수 있다.

불교를 주제로 한 곡들을 발표하는 대중음악그룹인 '다이카조(Daikyo, 리더:짐 지멘)'의 최근 음반 '연도승차권'은 컴퓨터 음악과일로 제작되어 있어 불자 네티즌이 언제라도 로딩(가져오기) 서비스를 이용해 음악을 감상할 수 있다. <http://www.zen-mtn.org/zmm/zmm.shtml>

스리랑카 불교사원 폭탄테러 불교계 테러비판 "反 타밀족" 시가행진

스리랑카 수도 콜롬보 마투루와 사원의 경외지에서 타밀엘람 호랑이가 저지른 폭탄테러가 1월과 2월 연이어 발생했다고 <시카고 트리뷴>지가 최근 보도했다.

스리랑카 소수민족인 타밀족의 자치구를 요구하는 무력단체 타밀엘람호랑이가 13년간 지속했던 폭탄테러 중 불교사원에 피해를 준 것은 이번이 처음. 1월 25일 사원경외지에서 저지른 테러와 6일 콜롬보 공항에서 저지른 폭탄테러로 총 49명의 사상자를 냈다.

<시카고 트리뷴>지는 "스리랑카 민족분규를 해결하기 위해 그동안 타밀족에 유연한 태도를 보아왔던 스리랑카 불교계의 반(反)타밀족 경향이 증폭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사건으로 2백여명의 스님들이 모여 시가행진의 자치구를 요구하는 무력단체 타밀엘람호랑이가 13년간 지속했던 폭탄테러 중 불교사원에 피해를 준 것은 이번이 처음. 1월 25일 사원경외지에서 저지른 테러와 6일 콜롬보 공항에서 저지른 폭탄테러로 총 49명의 사상자를 냈다.

<시카고 트리뷴>지는 "스리랑카 불교계는 성지의 위협을 막는 것으로만 그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관음출판사

관음역서시리즈 8

古典 佛學 叢書

命理學 萬問萬答

사주학 핵심비결

신비의 영부적 대사전

唐四柱大典

관음출판사

주소: 서울시 동대문구 용두동 751-14 광성빌딩

전화: 921-8434 팩스: 929-3470

마음 알기 다루기 나누기

IMF시대에
얼어붙은
가슴을 촉촉히
녹여주는 파스한
지혜의 말씀

웅타 스님 명상록
295원/값 7,000원

왜 각계각층의 많은 사람들이 '이하'하는 김태사를 쫓아내는가?

여러 해 동안 선방에서 수도한 승과 스님, 세속 잡사에 제들리던 회사원이며 선생님 및 가정 주부, 기업의 대표, 자신만 아는 자존심 강한 여대생, 대학 교수 등 슬픈 사람들이 '모 수련회'만 다녀오면 '이하' 이것이 인생살이의 진정한 뜻이구나. 그래 이제 바로 행복이며 해답이야 하고 무릎을 치고 만다. 선경, LG 서광 등의 대그룹에서는 사원 심성 개발 프로그램의 일환으로서 여기에 참여시키고 있을 정도이다. 각 대학 심리학과 교수 및 학생들의 호응도 광복한 만하다. 왜 그럴까? 마음을 알고 다루고 나누는 일들 하나하나가 구체적으로 감동을 주며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 책에는 이 모든 놀라운 사건이 가슴 뭉클하게 메아리치고 있다.

대원정사

대원정사 출판부 (02)754-1614/도서출판(대원사)(02)757-6717

수행으로 가는 길

불교의 다양한 수행법과 수행체계를 명쾌하게
일러주는 수행지침서!

이제일 지음
259원/값 6,000원

한국불교가 불교 본래 모습을 회복하기 위한 길은 오직 수행뿐이라는 일념 하나로 수행과 포교에 매진해 온 필자가 불교 수행의 올바른 길잡이를 제시해 준다.

- 무엇을 믿고 어떻게 수행해야 하나?
- 기도의 의미와 올바른 마음 자세
- 경건 읽는 법
- 열법의 자세
- 여러 가지 참선법
- 마음 다스리는 법
- 보살도의 실천

· 생활 속의 수행법 등이 알기쉽게 담겨져 있을 뿐더러 감동 또한 물론이다.

· 연·윤회·공(공) 등 불교의 기본 개념도 잘 설명되어 있다.

불자님을 위한 전문 광고회사

광고다운 광고!

"광고전문가와 만나십시오"

광고는 해야 하는데 아무곳에도 맡길 수도 없고, 아시는 광고회사도 없습니까?

광고 대행서 시작한 사업을 광고(카드, 광고전단) 잘못으로 낭패를 보셨습니까?

화주님! 돌아서니 안마음으로 불자님의 광고를 전달해 드렸습니다.

책을 해달라고, 경쟁사보다 수위에 설 수 있는 생생한 광고를 제작해 드립니다.

장르 광고회사는 아니지만 근본에 어긋남이 없이 최선을 다하는 광고회사 애드·윌입니다.

* 인제 관련 모든 광고를 친절하게 상담해 드립니다.

· 기업홍보 브로셔, 제품 카탈로그, 리플렛, 상품권
· C.I. 비주얼, 심볼 로고, 포스터, 축의문
· 신문광고, 잡지광고, 포스터, 카렌더, POP

ADVERTISING WILL

광고문의: (02)512-8868·8869